

지역 소식 통

이학수 정읍시장, 17일부터
이장단과 8개 동 순회

정읍시가 17일부터 8개 동지역 봉장단 241명과 만나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일정은 단순 민원 청취를 넘어, 한파 취약지역 안전 확보와 경로당 관련 건의 사항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시 17일 수성동을 시작으로 상교동까지 관내 8개 동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연다. 이번 자리는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봉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한 안전 대책과 경로당 관련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제 생활 속 불편과 한파 취약지역의 안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한국관광공사
위케이션 연계기업 캠퍼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위케이션 연계기업 및 SNS지탄 초청 캠퍼어를 지난 13~14일 부안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위케이션 사업을 경험했거나 관심을 가진 기업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해, 향후 부안 위케이션의 잠재 수요층 확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캠퍼어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담당자와 홍보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부안 위케이션의 장점과 지역 관광 자원의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 사례다.

참가자들은 졸포노을빛정원 위케이션센터, 졸포만하 제휴숙소 뽕다아레농원 체험장, 채석강 내소사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위케이션 업무환경과 관광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부안형 위케이션 모델을 현장에 확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아이부터 어르까지 건강 정읍’

정읍시보건소,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 시민 건강 증진 핵심 사업 성과·계획 발표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14일 브리핑실에서 2025년 하반기 언론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순회경 보건소장은 공공신후조리원 건립,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 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손 소장은 먼저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정읍 공공신후조리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계동 일원에 총사업비 105억 34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686.6㎡) 규모로 건립되며, 임시부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추게 된다.

지난 10월 22일 시공사를 선정하 데 이어 11월 10일부터 현장 부지 정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6년 11월 준공 후 2027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문을 연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전염병동’의 안정적인 운영 성과도 발표했다. 전문의 3명, 간호사 12명 등 총 15명의 운영 인력이 19개 병상(응급·격리실 1실 포함)을 갖추고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 중이며, 9월 말까지 외래진료 3611명, 입원 1731명을 기록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정읍(3264명) 외에 고창(139명), 부안(78명) 등 인접 시군 환자 비율이 10%가량을 차지해 서남권 공공보건의료 거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니어 의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활용한 ‘지역 주치의제도’ 역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 소통 · 화합의 중심공간’

고창군 교촌경로당 준공식

고창군이 지난 14일 고창읍 교촌마을에서 ‘교촌경로당 준공식’을 열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로운 경로당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교촌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교촌경로당은 노후된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2024년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롭게 신축된 것으로, 연면적 약 84.53㎡ 규모에 주민 편의시설과 주방 및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2019년 도로개설공사 추진으로 마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 이어, 이번 신축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교촌마을은 하늘공원과 고창향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이야기가 깃든 명소를 품고 있어, 앞으로 회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정전반의 효율성 · 투명성 높이기 위한 질문 이어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지난 12일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김석환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고향몰래’ 공모사업에 3년째 응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각종 공모에 적극 참여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오승현 부위원장은 정읍시에사회관 우수자 초청공연과 관련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범 위원은 정읍시 홍보물품이 부서별로 개별 제작되고 기성품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며, 홍보물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정읍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질문을 이어갔다.

이복형 위원은 순세계영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세밀한 분석과 철저한 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해숙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과 청년의 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사회 각계의 다양한 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 있는 인적 구성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만재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정적·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선미 위원장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나치게 축적돼 있다며, 재정 안정과 균형을 이루면서 복지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고성환 위원장은 출향인들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통한 효과적 홍보와 연계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백일상 · 돌상 무상 대여사업 시범 운영

부안군은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백일상 · 돌상 무상 대여사업’을 지난 14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저출생 시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용대상은 백일(생후 2~4개월) 또는 돌(생후 11~13개월)의 자녀를 둔 부안군민 또는 부안군내 소재한 사업체(사업장) 재직자라면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동안은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063-584-1345) 전화에 약으로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센터 내 포토존에서 직접 의류 및 소품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공간대여형, △가정에서 전통식 백일상·돌상 세트를 대여해 이용하는 물품대여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간대여형은 매주 금요일(14:00~16:00)과 토요일(09:10~11:10, 14:00~16:00) 운영하며, 전통식과 현대식 3종의 포토존과 한복, 드레스 등 아이 의류가 마련되어 있다.

물품대여형도 매주 금·토요일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대여 후 다음주 화요일에 반납하는 형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본격 착수

고창군이 지난 14일에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총사업비 653억원을 들여 2025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11.23km의 구간에 대해 홍수대응 제방보강 및 교량 제가설 14개소 등 하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읍 중심을 흐르는 고창천은 매

년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상존하던 지역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 예방과 군민이 산책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하천으로 변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급변하는 기후에 대비하여 하천 기능 향상과 홍수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고창군에서는 고창천과 함께 성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착수하여 총 5개의 하천정비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

정읍시가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분야 제1차 정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계기로 시는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핵심지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을 기반

으로 한 신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실험특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적용은 물론 재정지원,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시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매진해 왔다. 2023년 ‘정읍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로,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분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키웠다.

24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의약품개발 및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과 54억원의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사료용 농생명소제 개발’ 사업을 통해 소재 발굴, 비임상 수행 등 신약개발 기반을 구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